독후감

현대 건축 분석 (앤토니 래드포드, 셀렌 B. 모르코치, 아밋 스리바스타바 지음 조순익 옮김)

학번: 1402025

이름: 박성준

제가 읽은 책은 현대 건축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말그대로 근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어진 건축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해석본 같은 책이 였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약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저렇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훌륭한 책이 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훌륭하다 느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태를 잡은 설명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건물의 형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간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이 예쁘지 않거나 너무 이상하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요는 감소 할 것이고 건물은 쓸데없이 지어진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의 형태 즉 외관이나 매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냥 예쁘게만 지어 놓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대지의 관계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남극이나 북극 한가운데에 유럽에서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한국에 이집트 흙을 구어서 만든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울릴까? 물론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쳐도 그 건물은 그렇게 좋은 건축물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지역특성과 대지와 관계를 찾아내기 힘들다. 해석도 힘들 것이고 해석이 힘드니 형태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형태 해석과 대지와의 관계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적었다, ‘루지애나주 현대미술관’ 을 예로 들면 그 건물이 애초에 한번에 지은 것이 아닌 기존주택이 있었지만 건축주의 요구로 갤러리와 카페를 짓고 미술관으로 변한 것이다, 기존주택에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 동선이 길어지게 되었고 동선동 길어질 때 생기는 지루함이나 목적, 목표를 자연을 끌어들여서 풀어 냈다. 물론 이건 책을 읽으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말이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호수 갤러리를 만들어 냈고 개인주택을 방문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풀어내다 보니 상당히 동선이나 모양이 길어졌다. 그리고 기존주택 말고 위쪽에 새로 지은 건물을 본다면 가로 축 벽면을 굉장히 통일성 있게 만들어 놨다. 이런 점을 본다면 상당히 생각할 것을 주기도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건축학도로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한번 미술관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길게 풀어내는 것도 좋지만 가운데 중정을 두고 동선을 둥글고 길게 뽑아 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물론 건축주가 요구한 바다(호수 갤러리)가 보이는 부분을 다시 풀어야겠지만 가운데 중정을 두면서 가운데를 미술관을 보러 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너무도 많은 건축물 중 하이테크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홍콩상하이뱅크’ 이다. 홍콩상하이뱅크 HSBC 사옥인데 이 건물은 상당히 신기한 건물이다. 일반적 건물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반적 건물을 보면 주택이나 오피스 사무건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여러가지 건물을 봐도 구조체 즉 건물을 지탱해주는 부분을 건물안으로 숨겨 놨다. 대부분 이런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런 구조체를 밖으로 빼놨다, 누군가는 무척 흉물스럽다, 왜 굳이 저렇게 해 놨을까, 별로다, 라는 반응이 있지만 건물을 잘 살펴보면 나름의 매력이 있다. 1층을 필로티의 구조로 뚫어 놨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주요 은행의 홀로 이어진다. 에스컬레이터도 일반적으로 일자형태가 아닌 대각선으로 만들어 놨다. 한문의 팔자 형태라고 보면 된다. 건물의 구조체는 사다리형식으로 되었고 삼각형 모양으로 대칭으로 배치했다. 홀 부분을 아트리움 형식으로 뚫어 놨다. 그늘지게 루프를 씌어 놓았다. 뚫어 놓고 루프만 씌어 놓고 그냥 두면 아트리움 부분이 어둡고 칙칙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바깥부분에 선 스쿠프라는 장치를 달아 놓았다. 거울같이 반사 되는 장치인데 건물 옆부분에 뚫어 놓고 그 위치에 장치를 설치 빛을 반사 시켜서 건물 안쪽으로 끓어오는 것이다, 건물안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차단하는 경사진 날을 설치해 놓고 빛이 많이 오면 차단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창문 청소할 때 쓰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테크 건축이 나에겐 조금 별로이나 이 홍콩상하이뱅크에서 배치한 코어나 구조체 외형 또한 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 또한 아트리움을 열어 내부 시야를 넓히고 그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해 반사장치를 이용해서 내부를 빛을 가져오는 시스템은 상당히 인상적 이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빌바오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미국에도 있지만 스페인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도시의 랜드마크로 하나의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건물은 주변 강과 다리 그리고 도시의 입구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 졌다. 삼각형의 대지에 주변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다리 옆 조각적 타워와 관계를 생각해서 건물을 설계했다, 강의 물결과 강변의 곡선을 나타낸 입면, 물고기의 역동성을 나타내 주는 입면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보일 수 있게 접근할 때부터 보일 수 있게 조각적으로 금속 형태가 랜드마크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외관만 내세우고 내부가 좋지 않다면 좋은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 내부를 보자면 강변과 도시변을 중심으로 축이 형성 되어있고 내부 정중앙에 아트리움을 설치해서 3공간에서 모여들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서 내부를 밝힌다. 외피는 공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 하나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갤러리 미술관이라는 역할을 볼 때 직각도 쓸 수 있지만 직각으로 하면 무언가 딱딱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갤러리라는 특성상 그리고 주변 대지와 지역적 특성과 이루어져서 내부 평면 역시 일부러 곡면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곡면으로 처리를 해서 약간의 미술품과 갤러리 내부자체를 부드럽게 풀어낸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미술관이라면 대부분 흰색 혹은 라임스톤 노출 콘크리트 이런 비슷한 마감을 쓰고 대중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다. 근데 이 구겐하임은 외피 마감재가 금속이다. 실제로 미국에 이름이 같은 구겐하임 미술관은 약간 베이지색인 재료로 마감을 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면서 왜 금속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봤다. 물론 정답이 따로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정답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계 의도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탈산업화를 하면서 문화를 증진시키고 도시의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아마도 느낌상 랜드마크의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금속 외피로 한 것은 금속으로 외피를 해 놓으면 주변대지의 강에서 물결치는 물의 형상이 반사되어 보일 것이고 또한 자연광이 반사되어 눈에 띄기 쉬울 것이다. 어느 특정각도에서 보면 건물자체가 배의 형상을 하고있어 물위에 떠있는 듯한 착시가 들 때가 있다. 여러 방면으로 볼 때 랜드마크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한번쯤은 이런 건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요즘에 오피스 사무건축을 배우고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 내가 과연 이렇게 대지분석과 지역적 특색을 찾아내고 디자인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리고 디자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간의 배치와 실구획을 과연 저렇게 잘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적 건축가들과 그 건축가들이 만든 건축물들은 칭송을 받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건축을 전공으로 하지않고 건축업계에서 일하지않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건축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건물을 보면서 느낄 것이다. 아직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자괴감이 제일 먼저 든다. 진짜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디자인 한 걸 보고 내가 설계한걸 보면 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자괴감에 빠진다. 그럼에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계속 봐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번에도 읽고 해석하고 보면서 자괴감이 생겼지만 이번엔 나 자신을 약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거 같다. 요즘 약간 슬럼프같이 약간 붕 떴고 한번은 이 건축업계와 설계분야가 과연 진짜 내 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괴감이 생겼지만 한편으론 뭔가 되게 설레 였던 감정이 있었다. 건물을 보면서 여러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가지 감정과 생각을 가졌던 거 같다. 판타지책을 읽었을 때와는 다른 재미를 느꼈던 거 같다.